

E1001 종신 채권형(VL)통합

※ 공지 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종신 채권형(VL)통합의 자산운용회사인 ABL생명보험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우리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ABL생명보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예약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예약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3. 자산은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의하여 투자일임 운용됩니다.
4. 각종 보고서 확인 : ABL생명보험 <http://www.abllife.co.kr/02-3787-7000>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펀드 명칭	종신 채권형(VL)통합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66538		
펀드의 종류	변액보험, 추가형, 일반형	최초설정일	2007.03.20
운용기간	2020.10.01 ~ 2020.12.31	존속기간	최행으로 펀드의 존속기간에 없음
자산운용회사	ABL생명보험	펀드재산보관회사	우리은행
판매회사	ABL생명보험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 주로 국공채, 특수채 그리고 제한된 수량의 우량등급의 회사채에 투자 함으로써 적정수준의 자본이득과 이자수익을 달성함에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은 초과수익을 위한 여러 요인들 (듀레이션, 수익률선, 신용, 고평가/저평가 분석 등)을 활용하여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 재산 현황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백만좌,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종신 채권형(VL)통합	자산 총액 (A)	3,214	3,181	-1.04
	부채 총액 (B)	1	1	2.58
	순자산총액 (C=A-B)	3,213	3,180	-1.04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2,005	2,004	-0.05
	기준가격 (E=C/D*1000)	1,602.90	1,587.03	-0.99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운용경과

2020년 4분기 채권시장은 분기 초 미 대선에 집중되며 각종 대선 결과 시나리오 및 트럼프 대통령의 결과 불복 가능성 확대에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다만,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재정 정책 확대는 예정되어 있다는 전망에 채권 시장은 공급 우려가 확대되었습니다. 11월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결정되고, 주요 글로벌 제약사들의 코로나19 백신이 임상 결과에서 효과를 입증했으며, 주요국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경기 정상화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위험자산 선호가 이어지고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연말 시장은 국내 기관의 거래량 감소 속에서 전반적으로 외국인 선물 포지션에 따라 금리 방향성이 연동되었습니다. 미국은 추가 재정부양책 0.9조 달러를 통과시켰고, 1월 국제발행은 12.8조원으로 시장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기재부는 5년 이상 기간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2년물 신규 발행을 통해 장기물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으나, 국내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기존 연금펀드 3조원 수준에서 9.3조원으로 크게 확대됨에 따라 추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며 마감했습니다. 국고 10년물은 전분기말 대비 +24.2bp 상승한 1.722%에 마감했습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1분기 채권 시장은 코로나19 백신 기대감과 부양책, 글로벌 경기 개선과 함께 국내 반도체 중심의 수출 반등세, 정부의 재정지출이 1분기에 집중될 가능성,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정치권의 추경 언급의 잠재적 확산 우려 등이 금리 상승 압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재료는 이미 상당 부분 노출이 되어, 시장 금리에 선반영 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하면서 변동성 확대에 대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국고 10년 1.70%, 국고 30년 1.85% 이상에서는 전반적인

장기 금리의 상단이 막힐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의 경기 회복은 정상화 차원에서 기술적 회복세일 뿐, 정책 효과가 약화되면 경기 회복이 둔화될 개연성은 존재합니다. 1분기 듀레이션은 국고 10년 1.60~1.70% 대에서는 대략 BM 대비 긴 듀레이션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변동성 확대 장에서 무리한 듀레이션 베팅 보다는 일드커브 혹은 스프레드 전략을 통해서 일파 수익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다만, 10년 1.70~1.75% 수준에서는 10년 중심으로 듀레이션을 완만하게 확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인 바, 10년 기준 1.55~1.75% 박스권 대응을 통해 (비중은 낮더라도) 듀레이션을 조절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내 보궐선거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1분기 정부 지출 확대 외에 정부의 불필요한 추경 관련 언급 가능성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국고 3~10년 스프레드는 70bp 중심, 10~30년 스프레드는 15bp 중심으로 움직일 전망입니다. 2013년 버냉키 쇼크 국면에서의 3~10년 고점 76bp, 2015년 분트 금리 급등 국면에서의 3~10년 고점 77bp 수준을 단기적으로 테스트하겠지만, 그 이상을 돌파하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장기 물에 대한 대기매수 수요가 상당히 견조합니다. 다만, 현재 30년 중심으로 BM 대비 U/W 폭이 큰 상태입니다. 1분기 중 기술적 금리 반락 구간에서 10~30년 스프레드가 15bp 이상 확대 시, 30년 U/W 폭을 30년 입찰 등을 통해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위험자산 선호와 함께 국제 금리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높아지며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세가 좀 더 이어지겠지만, 그 축소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현재 펀드 YTM은 BM에 비해 10bp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크레딧 스프레드의 축소 트렌드를 따라가기 보다는, 고등급 크레딧 스프레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축소된 상황에서 고등급 위주로 차익실현의 기회로 삼을 계획입니다. 다만, 저등급 채권의 선별적 매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종신 채권형(VL)통합	-0.99	-0.90	-0.08	0.67
(비교지수 대비 성과)	(-0.13)	(-0.50)	(-0.89)	(-1.01)
비교지수(벤치마크)	-0.86	-0.40	0.81	1.68

* 비교지수(벤치마크): KIS종합채권지수(T-1) X 95% + CALL X 5%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종신 채권형(VL)통합	0.67	2.72	5.43	6.78
(비교지수 대비 성과)	(-1.01)	(-1.75)	(-2.61)	(-4.09)
비교지수(벤치마크)	1.68	4.47	8.04	10.87

* 비교지수(벤치마크): KIS종합채권지수(T-1) X 95% + CALL X 5%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손익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전기	0	10	0	-4	0	0	0	0	0	0	-4	3
당기	0	0	0	-29	0	0	0	0	0	0	-3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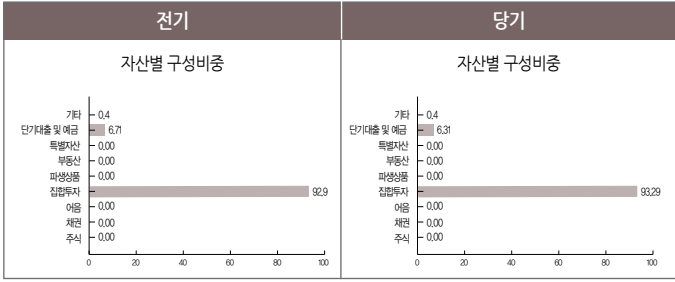
3.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1.00)	0	0	0	2,967	0	0	0	0	0	201	13	3,181
	(0.00)	(0.00)	(0.00)	(93.29)	(0.00)	(0.00)	(0.00)	(0.00)	(0.00)	(6.31)	(0.40)	(100.00)
합계	0	0	0	2,967	0	0	0	0	0	201	13	3,181

※ () : 구성비중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

구분	종목명	비중	구분	종목명	비중
1	집합투자증권 미래에셋변액보험채권증권 투자신탁(채권)	93.29	6		
2	단기상품 은대(우리은행)	6.31	7		
3			8		
4			9		
5			10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집합투자증권

(단위 : 좌수, 백만원, %)

종목명	종류	설정원본	순자산금액	발행국가	통화	비중
미래에셋변액보험채권증권 투자신탁(채권)	채권형	2,993	2,967	대한민국	KRW	93.29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 주,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예금	우리은행	2010-04-01	201	0.23		대한민국	KRW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백만원)

성명	직위	나이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최미영	부사장	41	78	2,646,562			2119000125
이대석	차장	38	78	2,646,562			2120001220
김태현	과장	37	78	2,646,562			2119000109
최명혁	사원	28	78	2,646,562			2119000110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운용전문인력
2019.01.25 ~ 현재	최미영
2020.09.17 ~ 현재	이대석
2019.01.24 ~ 현재	김태현
2019.01.24 ~ 현재	최명혁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0	0.01	0	0.00	
판매회사	3	0.10	3	0.1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0	0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4	0.11	3	0.11	
기타비용	0	0.00	0	0.00	
매매·중개수수료	단순매매·중개수수료	0	0.00	0	0.00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수수료	0	0.00	0	0.00
	합계	0	0.00	0	0.00
증권거래세	0	0.00	0	0.00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수수료는 제외합니다.

※ 성과보수내역 :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 해당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 연환산, %)

	총보수·비용비율(A)	매매·중개수수료 비율(B)	합계(A+B)
전기	0.4784	0.0003	0.4787
당기	0.4632	0.0006	0.4638

※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 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중신 채권형(VL)통합' 의 경우 펀드의 운용규모의 법적 기준 소규모상태(5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운용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단서에 의거하여 향후 불가피하게 임의해지를 통해 정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223조 제3호 및 제4호)